

##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 組織과 手工藝的 裝飾技法을 中心으로 -

金海英\*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衣類織物學科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Design of Women's Knitwears - Focusing on Stitch and the Handcraft Ornament Technique -

Hae Young Kim\* and Kyu Hwa Cho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 of stitch and designs of knitwears using handcraft ornament techniques.

This paper will also go on to develop and merchandize high value generated by design development.

Knit is largely divided into weft knit stitch and warp knit stitch which are respectively woven by weft knitting machine and warp knitting machine. For clothing, circular knit and flat knit are frequently used while plain stitch, rib stitch and purl stitch are perceived as the basic stitches. Denbigh stitch, cord stitch, atlas stitch, which belong to tricot stitch, are the basic of warp knit stitch. There are also numerous fancy fabrics adapting the previously mentioned stitches and these are made into solid pattern and yarn dyed pattern.

The handcraft ornament techniques in knitwears design are embroidery, beads, sequin, stone, printing, appliqué and fringe, etc. By applying these techniques thus creative expression, which cannot be expressed in other fashion items, is feasible. The women's knitwears are tries by mixed and various techniques, develop to high value knitwears, escaping from simple and practical items.

### I. 서론

오늘날의 패션산업은 과거 생산자 중심(product out)에서 소비자 중심(market in)으로,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하이 테크(high tech)에서 하이 터치(high touch)로, 실용의류 위주의 모방제품에서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패션상품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가족중심의 중소기업으로, 단순경쟁(win/lose)에서 경쟁자협력(win/win) 체제로 바뀌고 있다.<sup>1)</sup> 또, 세계섬유 제품 시장은 패션고급화 시장과 가격편의 시장으로 양극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IMF 이후 중산층의 붕괴로 말미암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가속화되어 패션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패션상품 특히 니트상품의 수출비중을 고부가가치성 제품을 위

주로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니트웨어는 니팅을 하기 전에 먼저 원사에서부터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어떤 편직기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같은 원사라도 조직의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며, 캐주얼하고 모던한 요소에서부터 과다한 장식적 요소까지 두루 표현할 수 있어 디자인에 있어서의 창의적 표현영역이 무한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니트는 신축성, 보온성, 방수성, 성형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언더웨어에서부터 아우터웨어 그리고 액세서리용품들 에까지 그 용도가 폭넓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니트는 점차 고급화, 다양화, 차별화, 개성화, 국제화 되고있는 패션방향에 선진국형 사업으로 우븐(woven) 못지 않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새로운 니치마켓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트기법을 응용한 디자인이나 미술의상으로서의 니트 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니트웨어의 디자인 실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니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니트의 조직과 니트 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수공예적 장식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방법들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의한 고부가가치 니트웨어를 개발, 상품화시키는 것은 물론 니트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본 논문에 실린 니트 조직들에 대한 사진들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직접 샘플을 수집하고, 실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기초로 사진 촬영 조사를 한 것이며, 니트웨어의 수공예적 장식기법에 관한 사진들은 패션관련잡지들과 인터넷 자료 그리고 산학 협동에 의한 연구로서 현재 니트프로모션업체인 「(주) 거림인터내셔널」에서 직접 연구하면서 그곳에서 생산된 상품들 중 일부를 직접 사진 촬영 조사한 것들이다.

## II. 니트와 니트웨어

### 1. 니트와 니트웨어의 의미

니트(knit)의 어휘는 손뜨개를 뜻하는 영어의 '맨다', '맨매듭'을 의미하는 색슨어의 니탄(nyttan)에서 유래한다.<sup>2)</sup> 니트(knit)는 루프(loop)의 이어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직물이 날실과 씨실의 교차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비해서 니트(knit)는 가로 또는 세로의 어느 한쪽 방향의 실을 사용하여 루프를 차례 차례로 이어가서 편물(編物)로 된다. 니트를 뜻하는 의미로는 재료와 기법을 불문하고 모든 것의 편조 직물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실 또는 끈 상태의 소재에 의하여 코(loop)를 만들어 연결하여 선이나 면 상태로 구성하는 수법이나 그 작품을 뜻한다. 니팅과 관련된 용어로 메리야스, 편성물, 편물, 편직 등 여러 말들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수편물과 그 기법을 가리켜왔으나 일반적으로 동력기계에 의한 것은 메리야스 또는 니트라고 불리는 반면, 직물상태의 것은 트리코(tricot), 저지(jersey) 등으로 구분하여 부른다.<sup>3)</sup>

또한 니트(knit)가 만들어지는 수단으로서는 뜨개바늘을 이용하여 완전히 손으로 뜬 것, 수편기(手編機)에 의한 것, 공업기계에 의한 것 등이 있다. 뜨개바늘을 이용해 손으로 뜨는 것에는 '코바늘 뜨기<sup>4)</sup>'와 '대바늘 뜨기<sup>5)</sup>'가 있다. 수편기는 대바늘 뜨기의 원리를 기계화한 것으로, 캐리지(carriage)<sup>6)</sup>가 한번 움직일 때에 1단이 한꺼번에 떠지게 된다. 시간이 절약되고 손의 수고도 덜면서 수편물의 장점을 완전히 살릴 수 있다.

니트웨어(knit wear)는 편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류의 총칭으로 기계편이나 편성 슈트, 스웨터, 폴로셔츠, 파운데이션, 속옷, 양말, 장갑, 모자 등을 비롯하여 모든 의류가 있으며, 이 중에서 기계편(공업생산)의 제품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니트드 아우터웨어(knitted outerwear)의 약자로 편성하여 만든 겉옷이라는 뜻으로 쓰이고도 있다.

## 2. 니트(knit)의 특성

편물은 실 또는 끈이나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이상의 편사를 가로 또는 세로의 방향으로 서로 얽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루프나 링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편지(編地)를 형성한다. 따라서 편물에는 원단의 상태로 되어 재단과 봉제의 공정을 거치는 것(cut and sew)과 처음부터 형태를 이루어가며 짜는 것(full fashion)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를 편직물, 후자를 성형 편물(成形 編物)이라고 한다.

또한 니트(knit)는 루프(loop)의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축성, 유연성, 방추성, 편조직의 다공성(多孔性), 성형성(成形成) 등의 장점과 함께 안락성(安락性), 내마찰성이 약하고, 런(run)<sup>9)</sup>, 컬 업(curl up)<sup>9)</sup>, 울풀림(snagging)<sup>10)</sup> 등의 현상을 일으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니트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니트제품 만들기에 있어서는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특히 용도에 따라서 편직물 설계나 봉제 시 디테일의 처리 방법 등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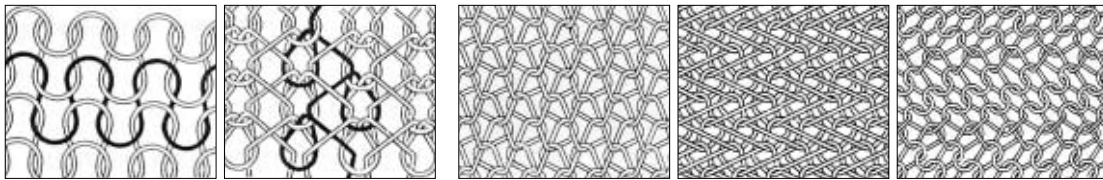
## Ⅲ. 니트의 조직

니트의 조직은 어떤 실을 이용하여 어떤 편기(編機)로 누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똑같은 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조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짜여진 서로 다른 수많은 조직들은 니트웨어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 1. 니트의 기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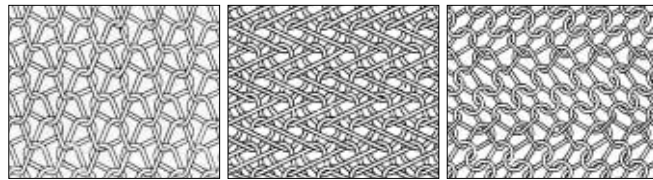
니트의 편성은 바늘의 편성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편기상의 배열된 바늘이 상승 또는 하강의 편성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그 각각의 바늘에 의해 루프의 열(列)이 연쇄된다. 따라서 니트의 조직은 루프를 형성하는 방법이나 루프의 배열방식에 따라 크게 위편성물(緯編成物)과 경편성물(經編成物)로 구분된다.

위편성물은 횡편기 또는 환편기로 얻어지는 편성물을 말하며, 위사가 고리를 만들면서 좌우로 왕복하여 평편(平編)으로 된 천을 편성해 내던가 또는 나선형으로 진행시켜서 원통과 같은 모양의 천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위편(緯編; weft knit)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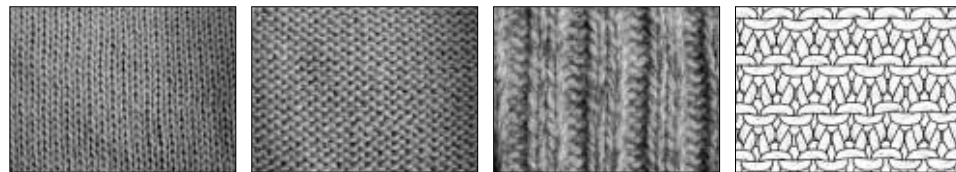
a. 경편                      b. 위편

<그림 1> 경편과 위편조직



a. 덴비조직                      b. 1×2코드조직                      c. 아틀라스조직

<그림 3> 경편의 삼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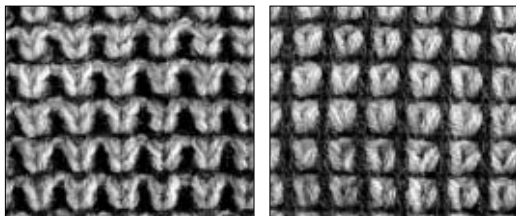


a. 표면                      b. 이면                      B. 2×2 리브편조직                      C. 펄편조직

<그림 2> 위편의 삼원조직

고 한다. 평편조직(plain stitch), 고무편조직(rib stitch), 그리고 펄편조직(purl stitch)<sup>11)</sup>의 3가지를 기본조직으로 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응용된 다양한 변화조직들이 있다(그림 2).

이와는 달리 직물을 만들 때와 같이 경사를 정경(整經)한 다음 각 경사가 고리를 만들어 이웃 좌우에 있는 경사와 연결되어지면서 천을 편성하는 것을 경편(經編: warp knit)이라고 한다. 경편성물은 경편성기인 트리코트편기(tricot 編機)<sup>12)</sup>, 라셀편기(rachel 編機)<sup>13)</sup>, 밀라니즈편기(milanese 編機)<sup>14)</sup>로 짠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덴비(denbigh), 코드(cord), 아틀라스(atlas) 조직을 기본 삼원조직으로 한다. 이 세가지는 모두 트리코트 조직에 속하는데, 트리코트 조직은 가늘고 균일한 실로 제작하여 표면이 매우 매끄러우면서도 다공성(多孔性)의 옷감을 만들어 란제리, 셔츠 등에 많이 사용된다. 또한 성글게 편성하여 스포츠 의류의 통기성을 돕는 안감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트리코트의 앞면은 평편과 매우 유사하나 이면은 실이 좌우로 진행된다. 한편, 덴비짜기를 1×1트리코트 또는 아틀라스짜기를 ‘반다이크(vandyke)짜기’라고도 한다. 또한 체인 짜기(쇠사슬짜기)를 넣어서 4원조직이라고 할 때도 있다(그림 3).



a. (표면)                      b. (이면)

<그림 4> 릴리프 무늬

## 2 니트의 무늬디자인

니트 조직을 응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무늬에는 바탕 실 짜기방법의 변화에 의한 무지무늬 계통의 것과 2색 이상의 실을 사용해서 색무늬를 표현하는 선염(先染)무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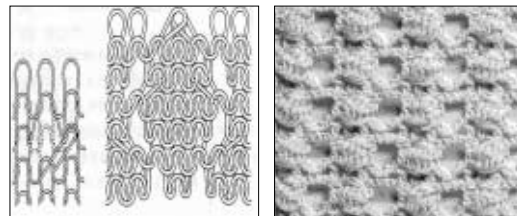
### 1) 무지(無地)무늬

#### (1) 릴리프 무늬(relief pattern)

릴리프(relief)는 「浮彫, 陽刻」의 의미로 겉코와 안코의 배열변화에 의한 요철(凹凸)무늬<sup>15)</sup>이며, 바둑판 무늬, 펄짜기(purl stitch), 블리스터(blister) 무늬 등이 여기에 속한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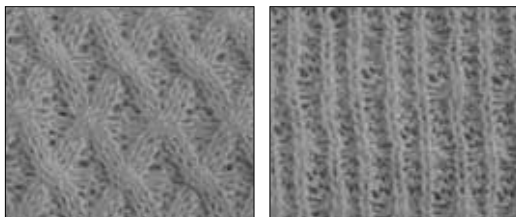
#### (2) 레이스 무늬(lacy pattern)<sup>16)</sup>

평짜기 또는 리브짜기로서, 니들 루프(needle loop)의 코이동에 의한 구멍트임을 디자인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레이스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자카드 장치를 사용하여 편포에 무늬감을 주기도 한다. 니들 루프의 이동은 수동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특수 편침에 의해 만들기도 한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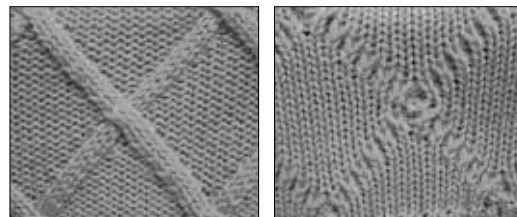
a. 레이스편조직                      b. 레이스무늬

<그림 5> 레이스 무늬



a. (표면)                      b. (이면)

<그림 6> 케이블 무늬



a. (표면)                      b. (이면)

<그림 7> 피셔맨 무늬

(3) 케이블 무늬(cable pattern)

케이블(cable)은 「굵은 밧줄」이란 의미로 패배기 편조직을 말한다.<sup>17)</sup> 이를테면 6올의 겉코 부분을 3올과 3올로 나누고 편성 중에 각각의 3올에 걸쳐있는 실을 어느 일정간격으로 넣어서 이랑사이를 비틀어 케이블 무늬를 표현한다. 이것은 '새끼줄코무늬'라고도 부른다. 케이블(cable) 무늬는 리브편직기의 흔들기와 코이동으로 또는 양두기(兩頭機)로 만들어진다. 케이블(cable) 조직(그림 6)과 피셔맨(fisherman) 조직(그림 7)이 여기에 속한다.

2) 선염(先染)무늬

(1) 자카드 무늬(jacquard pattern)

자카드(jacquard)는 원래 프랑스의 기직가(機織家)인 조셉 미리 자카드(Joseph Marie Jacquard)가 발명한 문직기(紋織機) 및 그 기계에 의해 직조된 문양의 직물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큰무늬를 직조한 직물을 지칭

하기도 한다.<sup>18)</sup> 편직 자카드는 싱글 자카드 무늬(single jacquard pattern)와 더블 자카드 무늬(double jacquard pattern)가 있으며, 모두 선염사(先染絲)를 사용해서 무늬를 표현한다. 싱글 자카드<sup>19)</sup>는 안쪽 실이 뜨지만 무늬실은 선명하게 보인다. 또한, 겉과 안이 색깔만 서로 반대이고 무늬는 똑같이 나타나므로 양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더블 자카드<sup>20)</sup>는 완전짜기식으로 배색에 따라서는 안의 색실에 의해서 스며 보일 때가 있다. 더블 저지의 변화 조직 중 하나인 블리스터(blisters)식은 입체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안실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블 자카드는 보통 2~6색까지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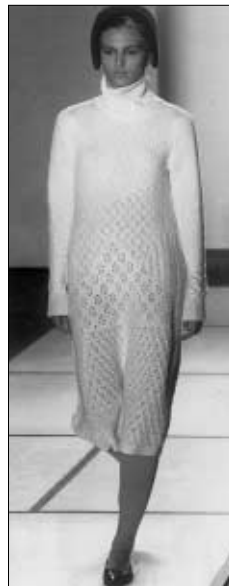
이러한 자카드의 종류에는 플로팅(floating)되는 실의 간격이 넓을 경우, 실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를 세워 떠가는 래더백 자카드(ladder back jacquard), 편직물의 안쪽이 버즈아이(bird's eye)식으로 되는 버즈아이 자카드(bird's eye jacquard), 색이 앞뒤 반대로 나타나는 트랜스퍼 자카드(transfer jacquard) 등이 있다.(그림 12)



<그림 8> 태번수 평편조직의 룩스커트  
98-99 A/W Collections  
Yoji Yamam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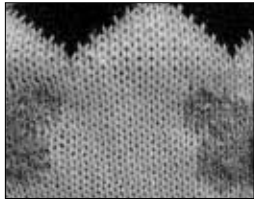
<그림 9> 태번수 풀편조직의 케이프  
00-01 Swarov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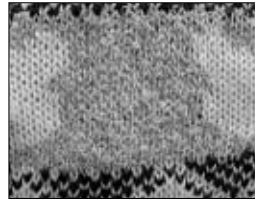
<그림 10> 여러 가지 레이스 무늬의 폴오버니트원피스  
00-01 Collections TSE  
New York



<그림 11> 피셔맨무늬의 V-neck 스웨터  
98-99 A/W Collections  
TSE New York



a. 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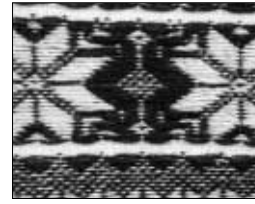


b. 이 면

A. 싱글자카드



a. 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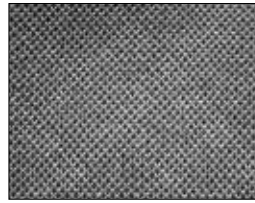


b. 이 면

B. 프로팅자카드



a. 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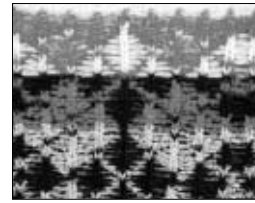


b. 이 면

C. 버즈아이 자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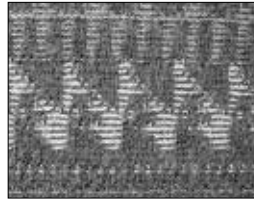


a. 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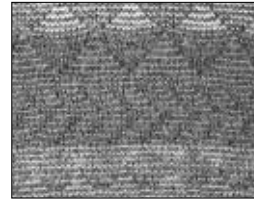


b. 이 면

D. 래더백 자카드



a. 표 면



b. 이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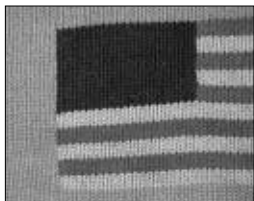
E. 트랜스퍼 자카드

<그림 12> 자카드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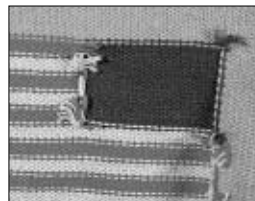
(2) 인타시어 무늬(intarsia)<sup>21)</sup>

선염사를 사용하여 모자이크식으로 무늬를 내고 다른실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다. 아가일무늬(argyle

design)<sup>22)</sup>나 기타 자유스런 무늬를 패널식으로 표현한다. 인타시어무늬는 평짜기식의 것이 많지만 리브짜기식의 것이나 펠짜기식의 것도 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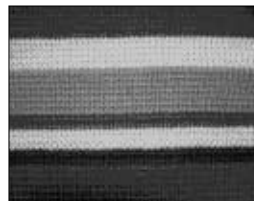


a. 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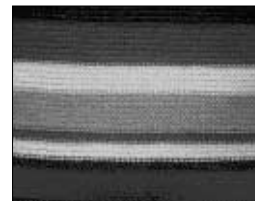


b. 이 면

<그림 13> Plain intarsia



a. 표 면



b. 이 면

<그림 14> 스트라이프 무늬

(3) 스트라이프 무늬(stripe pattern)

펼짜기나 리브짜기로서, 바탕실 이음장치에 의해서 줄무늬를 표현한다. 색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급사구(給絲口) 실의 색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얼마든지 자유로이 색상 그리고 스트라이프의 간격이나 수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직에서도 가능하다(그림 14).

IV. 니트웨어에 사용되는 수공예적 장식기법

오늘날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특유의 소재개발과 기술의 노하우, 고유의 이미지 창조이다.<sup>23)</sup> 때문에 현대 복식디자이너들은 자유로운 표현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며 개성적인 소재 개발 및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의 소재에 대한 관심을 재해석, 전통적인 기법을 가미한 수공예적인 직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특히 니트웨어는 최근 가장 패셔너블한 크라프트(craft 공예)인 동시에 아트(art)로 인정받으며, 과거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상과 다양한 테크닉의 발전을 보이고 있어 섬유예술차원으로 발전<sup>24)</sup> 하고 있으며, 실의 형태로 된 모든 재료는 그 어느 것이나 편물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구나 뜨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형성된다. 따라서 니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면질감과 조직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의 응용 등에 의한 창의적인 표현영역이 어느 다른 영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 중에 수공예적인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자수(embroidery), 비즈(beads)와 시퀸(sequin), 스톤(stone), 프린팅(printing), 아플리케(appliqué), 장식슬(fringe) 등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수(embroidery)를 이용한 장식기법

자수는(embroidery) 실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표현하

는데 섬유에 있어 질감은 거칠고 광택 없는 것, 거칠고 윤이 있는 것, 부드럽고 광택 없는 것, 부드럽고 윤이 있는 것의 기본질감의 어느 하나가 변화된 상태이다.<sup>25)</sup> 전통자수에서는 견사(絹絲)나 금사(金絲)를 사용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산업발전과 섬유발달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료들이 독특한 재질과 색조를 이루고 있다. 실의 종류로는 실크사, 털실, 불란서 자수실, 스웨덴 자수실, 안다리아실, 릴리앙실, 리본, 인견사, 화학사 등 범위가 다양하다.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전통자수는 주로 평수와 징금수를 사용하거나 구슬로서 장식을 하였으며, 현대자수에서는 점, 선, 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개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자수는 사용하는 실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기법을 사용해도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자수의 이해와 발전으로 그 영역이 넓어졌으며, 섬유산업의 발달로 실의 종류도 다양해져 현대 미술 사조와 함께 공예성을 탈피하여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림 15>는 니트 카디건에 동색계의 꽃문양을 수놓아 포근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2 비즈(beads)와 시퀸(sequin)을 이용한 장식 기법

비즈(beads)는 수예품, 실내장식, 복식, 장신구 등에 쓰이는 구멍 뚫린 작은 구슬을 말한다. 고대영어에서 기도 또는 염불에 쓰이는 '염주알'이란 뜻이며, 주술적·신앙적 목적에 쓰였고<sup>26)</sup>, 복식소재로서 액세서리나 의복의 장식 등에 쓰이게 되었다. 원시시대에 장식품으로 사용된 작은 열매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장식품<sup>27)</sup>으로, 현대적인 유리 비즈가 생산되기 이전의 비즈로는 값비싼 보석류가 사용되어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상류계층의 복식에만 국한되어 장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유리 비즈가 다양하게 대량생산되고 있어 심미적인 의복구성에 장식적인 강조로써 의상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비즈의 모양은 원통형, 사각형, 원반형, 구형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종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리 비즈(glass beads), 긴 구슬로 된 튜브 비즈(tube beads), 목제(木製)로 된 우드 비즈(wood beads), 골제(骨製)로 된 혼 비즈(hone beads) 등과 금, 유리, 수정, 보석과 준보석(semi-precious) 등 여러 가지가 있다.<sup>29)</sup>

비즈의 표현기법에는 실에 비즈를 꿰어 길이로 연결시켜 면적을 메우는 비즈 모자이크, 철망형으로 연속하는 방법인 비즈 네트(beads net), 레이스 편물실에 다 비즈를 꿰어 레이스 뜨기를 하는 비즈 편물, 가공한 여러 색의 비즈를 천에다 꿰지 않고 그대로 연속시키는 기법 등이 있다.<sup>30)</sup> 또 여러 형과 색의 비즈를 실로 꿰매어 도안에 따라 천에 꿰매는 비즈 엠브로이더리(beads embroidery)도 있으며, 주로 스팅글, 시퀸 등과 같이 사용된다.

시퀸(sequin)은 원래 13세기 베니스에서 만든 금화나 화폐형 의복부품을 의미했으나, 복식용어로는 현재는 스팅글(spangle)과 같은 의미<sup>30)</sup>로 의복 등에 꿰매 다는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만든 원형의 장식용 금속판으로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인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스팅글(spangle)과 거의 구별이 가지 않으나 스팅글이 그 모양면에서 하트형, 직사각형, 꽃모양, 짐승, 별모양 등으로 다양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비즈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광택 효과가 있어 이브닝 드레스, 블라우스, 스웨터 등을 장식하는데 이용된다.<그림 15-18>

### 3. 스톤(stone)을 이용한 장식기법

스톤(stone)은 보석 또는 준보석을 말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기는 비즈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차이점을 말하자면, 비즈는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반면, 스톤은 구멍이 나 있지 않은 작은 조각이다.

가공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스톤을 의상에 붙이기가 그리 쉽진 않았을 것이다. 스톤 자체의 값도 만만치 않은데다 옷에다 부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비즈 장식과 함께 이것



<그림 15> 동색계의 꽃문양을 수놓아 은은한 분위기를 주는 니트카디건  
96 S/S Collections  
Rena Lange



<그림 16> 비즈와 시퀸을 사용하여 동물 문양을 유모러스하게 표현한 풀오버 니트탑  
'00-01 A/W Collections  
Ice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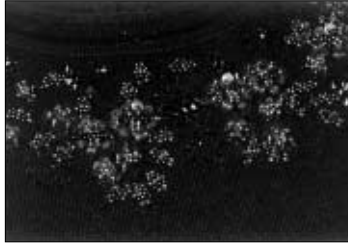


<그림 19> 니트 위에 hotfix를 사용하여 다른 재질감의 표현한 니트탑  
'00-01 A/W Swarov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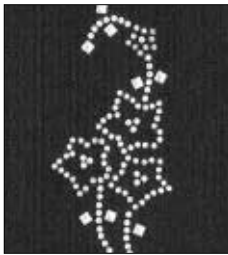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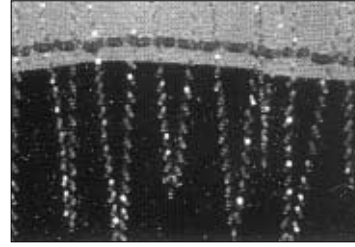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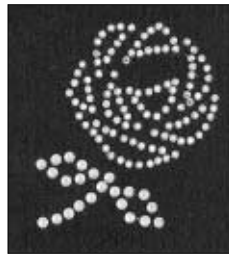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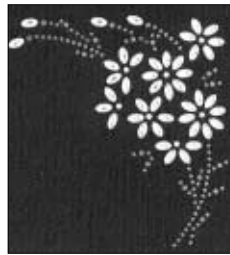
<그림 17> 시퀀(sequin)과 비즈를 이용한 새 디자인  
Modern Fashionin in Detail



<그림 18> 자수와 시퀀을 사용한 디자인 (左)꽃, (右)지그재그를 이용한 기하학무늬  
(주)거림인터내셔널 제작



<그림 20> 세번수 니트 위에 hotfix, metal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꽃모양을 표현한 디자인  
'00-01 A/W Swarovski



<그림 21> 세번수 니트 위에 붓으로 꽃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핫픽스로 장식한 디자인.  
(주)거림인터내셔널

으로 장식하는 것은 높은 신분의 상징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스톤(stone)은 핫픽스(hotfix)란 이름으로 의복을 비롯해 구두, 신발, 가방, 주얼리 액세서리(jewelry accessory)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이름은 스톤을 부착시키는 방법에서 유래되었다. 즉, 이것은 기존의 스톤(stone) 뒷면에 접착제가 있어 따로 모티브를 만들어 붙이거나 장식하고자 하는 위치에 핫픽스(hotfix)를 배치한 다음 열로서 접착제를 녹여 부착시킨다. 또한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유리나 크리스탈(crystal)을 주로 하여 금, 은, 알루미늄 등의 메탈(metal)을 재료로 한 것들도 있다. 하지만 쉽게 붙이고 뗄 수 없으며, 만약 떨어졌다 하더라도 접착제의 자국이 남아 다른 특수 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접착당시 열에 의해 천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접착제가 충분히 녹지 않아 제대로 붙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니트의 특성인 신축성에 다소 영향을 받으며, 많이 부착했을 경우에는 핫픽스(hotfix)의 무게 때문에 옷 전체의 무게가 무거워져 착용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그림 19, 20>

#### 4. 프린팅(printing)을 이용한 장식기법

프린팅(printing)을 이용한 기법은 니트 위에 금속롤러, 스크린 등을 사용하여 질은 유동성 날염호를 니트에 묻혀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며, 날염이라고도 한다. 프린팅 기법에는 롤러 프린팅(roller printing), 듀플렉스 프린팅(duplex printing), 피그먼트 프린팅(pigment printing), 전사날염, 방염, 사진 날염, 경사날염, 스크린 프린팅 등이 있다.

프린팅(printing)을 이용한 장식기법은 주로 니트 위에 직접 프린팅하여 나타내는데(그림 21)은 세번수 니



〈그림 22〉 대조색의 프린팅을 통해 무늬를 강조한 폴오버 니트 탑.  
00-01 A/W Collections  
Byblos



〈그림 23〉 조직의 변화로 패치워크를 하고 작은 꽃을 군데군데 배치시킨 폴오버 니트원피스  
'99-00 A/W Collections  
Yoichinagasawa



〈그림 24〉 장식술로 무늬를 표현한 니트원피스  
'99-00 Collections  
Christian Dior

트 위에 붓으로 꽃 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핫픽스(hotfix)로 장식하였으며, 〈그림 22〉은 대조적인 색으로 어시메트릭(asymmetric)한 문양을 프린팅하여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다르게 짜서 조직의 변화로 패치워크를 한 다음 그 위에 코바늘로 뜬 작은 꽃들을 군데군데 배치시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 5. 아플리케(appliqué)를 이용한 장식기법

아플리케(appliqué)는 장식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바탕 천에 조그만 조각을 오려 붙여서 장식하는 수예로서 기법이 간단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세기부터 시작된 아플리케 기법은 현대에 와서 더욱 발전되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아플리케의 방법에는 첫째, 여러 가지 형을 오려 붙여 배색하는 방법과 둘째, 커다란 두 장의 천을 겹쳐서 모양의 주의를 뜨고 나중에 윤곽을 잘라내는 방법 셋째, 아플리케를 천 뒤에 대고 떠나가는 방법으로 비치는 천을 사용하여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이 있다.<sup>31)</sup>

〈그림 23〉는 서로 다른 성질의 실을 가지고 서로

### 6. 장식술(fringing)을 이용한 장식기법

프린징(fringing)이란 '장식술'로써 실을 사용하는 방법과 직물의 울을 풀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모사·견사·금속사 등을 몇 올씩 코바늘로 천에 걸쳐 매듭을 지어 매다는 것으로 숄(shawl)이나 스카프(scarf)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또 천의 울을 뽑아 몇 올씩 묶어주는 방법은 코트나 재킷의 밑단(hem), 어린이 옷, 블라우스의 칼라(collar), 단(hem), 커튼, 가구커버의 가장자리 장식 등에 이용된다.<sup>32)</sup> 〈그림 24〉는 니트웨어 위에 반대의 색실을 이용하여 장식술을 하여, 니트조직의 무늬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숄(shawl)의 끝에도 장식술(fringing)을 이용하여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니트웨어는 단순히 니트의 전통기법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수(embroidery), 비즈(beads)와 시퀸(sequin), 스톤(stone), 프린팅(printing), 아플리케(appliqué), 장식술 fringe) 등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을 혼합시킴으로써 디자인의 표현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단순히 실용적인 아이템으로서의 니트에서 탈피하여 다른 패션 아이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독창적인 표현이 가능하여 예술성까지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 V. 결론

오늘날의 패션산업이 소비자 중심의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패션상품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지향과 함께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섬유쿼터제 폐지 등의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니트웨어는 그러한 모든 점을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아이템이다.

그 이유는 첫째, 니트웨어는 원사의 물리적 성질과 조직의 변화, 다양한 표현양식에 따라 디자인을 다양하게 전개시킬 수 있다. 즉, 어떤 성분의 실로 어떠한 편직기를 가지고 어떻게 짜고, 그 위에 어떤 표현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니트웨어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

둘째, 니트웨어는 신축성과 유연성, 보온성, 방추성이 좋고, 기계로 성형(成形)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세기 후반 저지(jersey)가 출현한 뒤로 내의류(內衣類)는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최근 스포츠·레저 웨어를 비롯하여 패션성이 큰 여성정장 아우터웨어까지 그 사용 범위가 넓다. 현재 니트는 각 의류 전개 아이템 중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이다.

셋째, 캐주얼하고 모던한 요소에서부터 과다한 장식적 요소까지 두루 표현할 수 있는 니트는 코디네이트 요소가 강하며, 직물, 가죽, 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소재와의 믹스, 그리고 니트 위에서 행해지는 다양

한 장식기법의 이용 등 디자인에 있어서의 창의적 표현영역이 무한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적합한 여성 니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니트조직과 수공예적 장식기법을 사용한 디테일에 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니트의 조직은 크게 위편조직(緯編組織)과 경편조직(經編組織)으로 나뉘며, 위편조직은 횡편기(丸編機)나 횡편기(橫編機) 등의 위편성기로 얻어지며, 평편조직, 리브편조직, 펠편조직을 기본조직으로 다양한 변화조직들이 있다. 경편조직은 덴비(denbigh), 코드(cord), 아틀라스(atlas) 조직을 기본 삼원조직으로 한다. 의류용으로는 주로 티셔츠에 많이 사용되는 다이마루(승丸)라 불리는 횡편니트와 보통 니트라 부르는 횡편니트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을 응용하여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무늬를 만드는 방법에는 바탕실 짜기 방법에 의한 무지무늬와 2색 이상의 색실을 사용해 색무늬를 표현하는 선염(先染)무늬가 있다. 무지무늬에는 릴리프 무늬(relief pattern), 레이스 무늬(lacy pattern), 케이블 무늬(cable pattern) 등이 있고, 선염무늬에는 자카드(jacquard), 인타시아(intarsia), 스트라이프(stripe) 등이 있다.

이러한 기본조직과 그것을 이용한 무늬디자인을 바탕으로 현대 니트산업은 원사부분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팬시안, 복합사 그리고 특수 기능을 부여한 합연사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편직 부분에서는 고속화, 세번수(細番手)화를 지향하면서 고부가가치와 무늬형식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점점 고부가가치 니트류의 조직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니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되는 수공예적 장식 기법에는 자수(embroidery), 비즈(beads), 시퀸(sequin), 스톤(stone), 프린팅(printing), 아플리케(appliqué), 장식술 fringe)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응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단순히 실용적인 아이템으로서의 니트에서 탈피하여 디자인의 다양화와 함께 다른 패션 아이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독창적인 표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점차 고급화, 다양화, 차별화, 개성화, 국제화 되고있는 패션방향에 선진국형 사업으

로 적당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니트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 조직의 변화, 수공예적 장식기법의 응용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 개발은 물론, 점점 더 세분화, 다양화되어 가는 세계시장의 흐름에 탄력 있게 대처함과 동시에 니트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조규화, 새 천년의 패션산업,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가정과학대학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1999, p. 88.
- 2) 櫻井行南 · 生方博子, The Art of Knitting: 編物の歴史, 日本ヴォーグ社: 東京, 1979, p. 10.
- 3) 相原英勝. ニットの 知識, 洋品界: 東京, 1978, p. 14-15.
- 4) 레이스 바늘에서는 12호(0.85mm)에서 0호(2.00mm)까지 있으며 코바늘은 2/0호(2.30mm)에서 10/0호(7.00mm)까지 있으며 점보바늘에서는 8mm~12mm)까지의 종류가 있어 루프(loop)의 굵기를 정할 수 있다. 전체로 옷을 만들기도 하지만 옷에 부분장식이나 레이스 그리고 받침용으로 많이 쓰인다.
- 5) 바늘 종류에는 0호(2.1mm)에서 20호(11mm)까지 있으며, 점보바늘에서는 8mm에서 15mm까지 있어 루프(loop)의 게이지(gauge)를 정할 수 있다. 모자, 장갑, 목도리 등 액세서리에서부터 각종 스웨터까지 그 범위가 넓다.
- 6) 캐리지(carriage): 침상(바늘이 꽂혀있는 판) 위를 이동하는 장치로 캠(cam)과 우수(yarn carrier) 등을 돌려준다.
- 7) 안락성은 천의 신도에 의존하는데 편성물의 신도는 40~200%로 인체의 피부의 신도 30~40%보다 큰 데 비해 직물은 10~20%로 인체의 피부신도보다 작다. 따라서 편물은 입고 벗기가 쉽고, 입어도 구속감을 느끼지 않아 피곤하지 않다.
- 8) '전선현상' 이라고도 하는데, 편물에서 한 루프(loop)가 끊어지면 사다리 모양으로 풀려 가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재단한 곳이 풀어지기 쉽다. 이 현상을 저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코가 좌우의 다른 두 종류의 실로 얽혀져 있는 트리코트(tricot)가 있으며, 짜짐과 짜지지 않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편물이 있고, 합성수지로 접착시키는 non run가공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
- 9) 컬 업(curl up)은 편성물의 가장자리 부분이 휘말리는 현상으로, 편성물의 재단과 봉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단, 양면 편물(interlock)은 휘말림 현상이 없다.
- 10) 편물은 고리단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물을 굽거나 문지를 때 실의 일부가 편성조직으로 끌어당겨져 밖으로 풀려 나오는데 이를 'snagging' 이라고 한다.
- 11) '가터(garter)' 라고도 하며 더블실린더(double cylinder)의 원형편기나 양두침(兩頭針: double headed latch needle)의 횡편기(橫編機)에서 편성하는 조직으로, 평편조직의 표면과 이면의 편환을 1코스마다 차례로 바꾸어 나타낸 것 같은 조직이다. 이러한 1×1 평편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2×1 평편, 3×1 평편, 2×2 평편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변화 조직이 있다. 공석봉, 패션소재핸드북, (주) 패션정보사, 1997, p. 177-178.
- 12) 트리코트편기(tricot 編機)는 평형식(平型式)으로 편기(編機)가 가로 방향에 수직모양으로 늘어서고, 편침(編針)의 위쪽 부분에 바디(가이드바)가 설치되어 있고 바디에 붙여진 가이드 니들이 상승해온 편침에 대해서 실을 건네는 방식을

- 취한다. 수염바늘을 이용하여 게이지가 가늘고 얇은 아름다운 편직물을 만든다. 바디의 매수(枚數)는 라셀편기에 비해 적으며, 대체로 무지 편직물을 만들어, 란제리용의 천 등에 많이 이용된다. 회전수가 많아 생산성이 좋다. 싱글 니들기의 것이 대부분이지만 더블 니들기의 것도 있다.
- 13) 라셀편기(rachel 編機)는 트리코트편기와 마찬가지로 평형식(平型式)이며, 걸쇠바늘을 사용한다. 게이지는 트리코트편기에 비해 거칠고 일반적으로 팬시(fancy)한 편직물을 만든다. 바디의 매수(枚數) 및 바디의 작동 범위가 트리코트편기보다 많으므로, 꽤 다양성이 있는 편직물을 만들 수 있다. 겹옷용의 저지나 레이스지 외에 인테리어 분야의 커튼이나 카펫, 또는 파워 네트 등의 전용기가 있다. 싱글 니들기와 더블 니들기가 있다.
- 14) 밀라니즈편기(Milanese 編機)는 경편기(經編機)의 일종으로, 걸쇠바늘을 사용하는 원형식의 것과 수염바늘을 사용하는 평형식의 것이 있는데, 흔히 원형식을 이용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설치 대수가 적다. 원형식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2조(組)의 링모양 바디를 가지며, 여기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실무리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실무리의 교차점을 걸쇠바늘이 파악해서 루프를 만드는 것이며, 바이어스방향의 체크식 편직물을 만든다. 선염사(先染絲)를 배열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체크무늬가 밀라니즈편기의 유일한 무늬이다.
- 15) 공석봉·염삼주, 섬유패션·소재 사전, 한국섬유신문사, 1999, p. 189.
- 16) 레이스 무늬(lacy pattern)는 needle loop의 코이동에 의해 구멍을 만들어 무늬를 만들어 가는 조직을 업계에서는 「스카시 조직」으로 부르고 있다.
- 17) 조규화·구인숙·금기숙,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 520.
- 18) 조규화 외, 앞 글, p. 452.
- 19) 싱글 자카드(single jacquard)는 싱글니들 즉 일렬로 된 편침편기의 자카드기로 짠 것으로 기본은 평편으로서 이면사가 돌출되기 때문에 플로트 자카드(float jacquard)라고도 한다. 즉, A실이 겹쪽에서 니트를 형성할 때 B실이 안쪽에서 뜨고, 또 반대로 B실이 겹쪽에서 니트를 형성할 때 A실이 안쪽에서 뜨는 방식으로 색무늬를 표현한다. 따라서 겹과 안이 색깔만 서로 반대이고 무늬는 똑같이 나타나므로 양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20) 더블 자카드(double jacquard)는 2열 바늘 리브(rib)가 마주친 것인데, 2~6색의 짜넣기 무늬로써 다이얼 니들 쪽을 긴바늘과 짧은 바늘이 서로 교차하여 배열된 리브록 마주침의 것이 많다. 이 경우에는 편직물의 안쪽이 버즈아이(bird's eye)식으로 된다. 또한 횡편기(橫編機)로는 긴바늘과 짧은바늘을 이용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편직물의 안쪽이 스트라이프식으로 된다.
- 21) 인타시어(intarsia)는 이탈리아어인 'intarsiare'에서 유래된 말로 「인레이」를 뜻한다. 인타시어는 실제로 인레이되는 것 같아 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색으로 된 실을 사용하여 단색의 편성포에 삽입 편성된 모티브나 장식이다.
- 22) 아가일 무늬(argyle pattern)는 마름모형의 체크무늬, 혹은 다이아몬드(diamond) 체크의 일종이다. 수편(手編)이나 기계편 어느 쪽에도 있다.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모양 외에도 산무늬, 버이삭무늬 등 각종 모양의 것이 편성된다. 일반적으로 스포티(sporty)한 무늬 색상은 2~3색을 많

- 이 쓰며 주로 양말, 스웨터에 사용하고 장갑에 사용되기도 한다. 아가일(argyle)은 스코틀랜드 서부해안의 주 이름을 딴 것이다.
- 23)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7. p. 276.
- 24) 최경희, 현대니트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3, 2000. p. 116.
- 25) 배 만실, 디자인과 색채, 서울: 이대출판부, 1975, p. 123.
- 26)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편), 동아원색세계백과사전, 제 15권, 동아출판사, 1983, P. 390.
- 27) R. Turner Wilcox, The Dictionary of Costume, B.T. Batsford LTD: London, 1979, p. 21.
- 28) Charotte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95, p. 27.
- 29) 서정인, 유재선, 자수기능사, 대광문화사, 2000, p. 49.
- 30) 조규화 외, p. 326.
- 31) 서정인 · 유재선, 자수기능사, 대광문화사, 2000, p. 41-42.
- 32)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 653.